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기간	19.01.15 ~ 19.02.04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알고마대학교는 토론토와 조금 떨어진 수세인트마리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시설은 괜찮은 편입니다. 학교 안에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인 팀홀튼도 있고 음식 파는 곳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양 학생보다 인도, 일본 등 아시아 학생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첫날에 레벨 테스트를 보고 A반과 I반으로 나뉩니다. 같이 파견된 순천향대학교 한국인 학생들끼리 수업을 들었으며 두 반 사이에 수업 내용은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영어 문법, 캐나다 문화와 역사 등을 배웠습니다. 수업은 지루하지 않고 재밌으며 선생님들도 모두 친절하십니다. 학생들이 여기까지 와서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과제도 거의 없습니다. 가끔 집에서 해오라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10분이면 끝날 만한 가벼운 것들입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1교시가 시작되고 4시쯤에 학교가 끝납니다. 수업할 때 책은 필요 없고 노트도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필기구만 챙겨 가시면 됩니다. 노트북도 필요 없습니다. 괜히 짐만 돼요ㅠㅠ 컴퓨터 쓸 일이 마지막에 메모리북 만들 때 밖에 없는데 학교에 컴퓨터실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p>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총 4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국 전통 게임, 한글, 기타 한국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고 할 땐 조금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활동이었습니다.</p> <p>알파카 농장: 알파카 농장에서 알파카를 직접 보고 만지고 먹이를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알파카들이 커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계속 보니 귀여웠습니다.</p> <p>스키, 스케이트: 추가비용은 들지 않았고 스키복과 스케이트는 홈스테이에서 빌려줬습니다. 스케이트 없는 집도 있어서 학교에 말하면 학교에서 빌려줍니다.</p> <p>하키경기 관람: 캐나다는 하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는 하키경기를 처음 본 거여서 룰도 모르고 경기방법도 몰랐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눈도 많이 오고 매우 춥습니다. 보통 영하 15~20도 정도이고 심한 날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길거리에도 항상 눈이 쌓여있어서 방한부츠는 필수입니다!! 운동화 신으면 발가락이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히트텍과 바지 안에 레깅스도 매일 입고 다녔습니다.</p>
안전	<p>사람들이 다 친절하셔서 다니면서 한 번도 위험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p> <p>저는 지하에 있는 방을 썼는데 조금 추워서 아빠에게 말했더니 바로 히터를 가져다 주셔서 따뜻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하면 친절하게 다 들어주십니다. 수건이나 드라이기는 홈스테이에서 준비해주셔서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가족들과 함께 썼는데 건식이라는 점과 샤워기가 위에 고정되어 있어서 살짝 불편했지만 금방 적응되었습니다. 다행히 샤워시간의 제한 같은 건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점심은 매일 홈스테이에서 싸주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지 정확히 말해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도 음식을 팔아서 학교에서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은 집에 가서 먹거나 친구들과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부 식당들보다 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었습니다.</p>
교통	<p>학교에서 버스패스를 제공해주셔서 교통비는 따로 들지 않았습니다. 버스 간격은 40분정도에 한 번씩 와서 한 번 놓치면 수업에 늦게 되고 뱅뱅 돌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도 오래 걸립니다.</p> <p>그래서 아침에는 홈스테이 가족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차로 15분정도 걸렸고 버스로는 45분 걸렸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항공료 1,715,000원 여행자보험 24,68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715,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24,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환전	500,000원	외식, 쇼핑 등
합계	2,239,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홈스테이 배정 결과가 나오면 꼭 미리 연락해서 무엇을 챙겨 가면 좋을지 여쭙보세요!
예를 들어 스키복이나 수건, 드라이기, 세면용품 등 대부분 홈스테이에 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을 사가는 게 좋아요. 저는 오히려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저도 선물을 안 사왔으면 죄송스러웠을 것 같아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시니까 큰 선물 이 아니어도 됩니당!

점심시간에 한국학생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인기스타가 되고 싶으시면 한국 음식 싸주세요. 컵라면이나 컵밥 등 한국음식 엄청 생각나요 ㅠㅠ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캐나다에 가기 전에는 3주가 길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정말 짧게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학교 선생님들도 다들 너무 친절하셨고 질문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두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홈스테이 가족 분들도 마치 친자식 처럼 저를 잘 챙겨주셨고 중간에 한 번 크게 아팠던 날이 있었는데 계속 약 챙겨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렸고 감동 받았습니당 ㅠㅠ

솔직히 3주 동안 드라마틱한 영어 실력 향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영어로 말하는데 자신감은 확실히 생긴 것 같고 캐나다의 문화를 느끼고 배웠어요. 차별 없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바쁘지 않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캐나다 사람들이 부러웠고 또 좋았습니다.

날씨도 춥고 비행기 값도 비싸서 오기 전에 많이 고민했었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소중한 인연과 캐나다에서의 잊지 못할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다는 자체로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충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캐나다에 꼭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엄청 추웠던 스케이트 탄 날



귀여운 알파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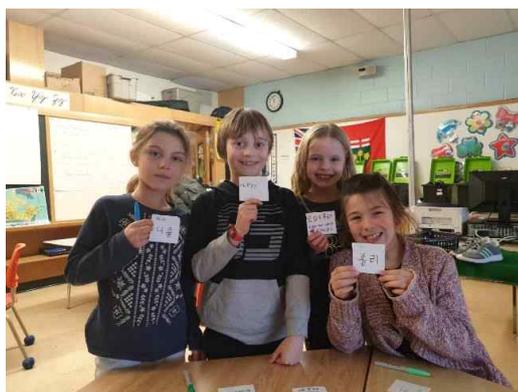
마시멜로우 구워먹기



재밌었던 하키 게임



스시 무한리필 집!



봉사활동에서 만난 귀여운 아이들